

독일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 스텐 나돌리의 〇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 〇 을 중심으로

최 윤 영
(서울대)

1. 독일의 다문화사회

최근 독일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이다. 2000년대의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 풍경은 실제적으로 다문화사회적으로 변모해있다.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이미 인구의 1/3 이상이 소위 과거의 ‘이민배경’을 지니고 있고 300여 만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통합 상황은 민족과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다. 부분적으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그 사이 ‘이주노동자’에서 ‘이민자’로 위상이 바뀌었다.¹⁾ 그

0) 이와 관련한 독일 사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윤영(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실린 곳: 〇〇독어교육 〇〇, 제35집, 425쪽 이하 참조.

주 제 어: 스텐 나돌리,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 상호문화적 글쓰기, 다문화사회
Sten Nadolny,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terkulturelles Schreiben,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문화논쟁 Leitkulturdebatte’을 위시한 독일과 유럽의 정체성 논쟁이나 마틴 발저 등의 최근 논쟁²⁾에서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독일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틈새”시민으로 인정할 뿐이다.³⁾ 2008년 연초에도 “청소년 범죄 Jugendkriminalität”나 “과도한 타문화 Überfremdung” 등을 화두로 이민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분명한 사회적 선긋기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⁴⁾

독일어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상호문화성 Interkulturalität’ 논의이다. ‘다문화성 Multikulturalität’ 내지는 ‘초(超)문화성 Transkulturalität’이 논의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상호문화성 논의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이것이 독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독어권에서는 ‘다문화성’이 상이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더 나아가 한 나라 안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합적 사회 목표로 이해되는 반면, 상호문화성 개념은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연결시키고,⁵⁾ 각 문화체제의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문화적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실천적

2) 1990년대 이후 독일 지성계에서 벌어졌던 우파, 반유대주의, 독일의 정체성 등의 논쟁에 대해서는 장희권(2006), 「회귀하는 보수주의. 보토 슈트라우스 논쟁을 통해 본 1990년대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34집, 201-226쪽 참조.

3) M. Durzak(1991), Schnittpunkte interkultureller Erfahrung. Am Beispiel deutsch-türkischer Begegnung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 *Praxis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Forschung - Bildung - Politik*. Beiträge zum 2. internationalen Kongress der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München, S. 292-304.

4) 독일사회의 이민자사회에 대한 선긋기는 때로 노골적으로 때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헤센 주의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요구는 외관상으로는 독일사회 내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자들이 대체로 터키계 2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이민자 문제로도 볼 수 있다.

5) G. Auernheimer(1990), *Einführung in die interkulturelle Erziehung*, Darmstadt: Primus, S. 3.

행동으로 이해된다.⁶⁾ 독문학계에서도 바이로이트 대학의 비어라허를 중심으로 주창하는 ‘상호문화독어독문학 *interkulturelle Germanistik*’이나,⁷⁾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독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 다수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유효성과 시사성을 보여주고 있다.⁸⁾ 이는 다른 한편 독일적 특수성에서 연원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여러 다른 인종들과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사는 미국과 달리, 독일은 19세기에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스스로를 단일민족국가라고 이해해오다가 현대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때문에 여전히 민족주의 및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일민족이 여전히 자신을 주류로, 다수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타민족이나 이민자가 이 문화에 ‘동화 *Assimilation*’되거나 ‘통합 *Integration*’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현실에서 독일의 현실은 교사내지는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 나타나는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를 최근의 독일문학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이를 두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사회라는 현상을 우선 독일문학사의 관련 서술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이는 전체적인 고찰이 될 것이다. 주로 다문화사회를 소재나 주제로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독일문학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작품들로는 우선 ‘당사자 *Betroffene*’들로서 이를 특히 진지하게 형상화하는 이민자들의 문학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독일작가가 다

6) S. Zagala(2007), *Kulturkampf in den Medien*, Saarbrücken: Vdm-Verlag, S. 6-7.

7) Vgl. A. Wierlacher/A. Bogner(2003), *Handbuch interkulturelle Germanistik*, Stuttgart/Weimar: Metzler,

8)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독문학자대회에서 다카하시가 상호문화성을 주제로 연설을 한 것을 위시하여 오버마이어, 지겔, 유현주, 고위공, 펠데스, 릭이 상호문화성이라는 개념을 제목에 명시한 발표를 하였고 다문화성이나 초문화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다. *Kulturwissenschaftliche Germanistik in Asien*. Programm, 2006, <http://asia2006.german.or.kr> 참조.

문화사회를 소재로 다룬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문화사회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때 독일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를 다룬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나돌니 Sten Nadolny의 □□젤립, 혹은 옹변의 재능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1990)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⁹⁾ 독일문학의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를 독일에 사는 비독일계 작가들의 문학인 이민문학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전체적 조망에서부터 개별 작품 분석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반대로 문학에 형상화된, 독일인의 시각에서 보는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¹⁰⁾

2. 독일문학사와 다문화사회

독일문학은 오랫동안 독일인에 의하여 독일어로 쓰여진 문학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를 문학사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문학사를 살펴보면 제3제국의 비극과 관련된 유대인 문체와 분단의 문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통일 이후에도- 문화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는 크게

9) S. Nadoly(1990),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München: Piper.

10) 이민문학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최윤영, 박정희에 의하여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있다. 독일이민문학의 전체적 조망을 위해서는 박정희(2004), 「최근 독일어권 문학에서 이주자문학의 현황」, 실린 곳: □□독일문학□□ 제 91집, 187-206쪽/최윤영(2006), 「낮선 자의 시선 외즈다마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방성과 다문화성의 문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33집, 77-102쪽/최윤영(2006), 「매체로서의 언어, 매체로서의 몸. 요코 타바다의 목욕탕과 벌거벗은 눈을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문학□□, 제 99집, 86-106쪽 등.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독일문학계에서 여전히 유대인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문화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사회’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사회풍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는 최근에 와서야 독일문학사에도 뒤늦게나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문화상황에 주목하는 문학은 여러 부류가 있다. 우선 다문화적 현실은 무엇보다도 이민작가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실제 사회계층으로서 그 중 다수가 이주노동자문학에서 출발했지만 현재에는 다채로운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키계 이민문학으로부터 동방계(시리아 등) 이민문학, 러시아계 이민문학, 동구권(루마니아, 폴란드 등) 이민문학 등이 있고 소수이지만 동양권(몽고, 일본 등)의 문학도 있다. 이들 이민작가들은 대체로 베를린, 뮌헨 등의 대도시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은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자기 자신의 현실로 최전방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주제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사회가 자신이 열린 다문화사회라고 주장하고 유럽연합의 다문화사회로 가자는 공식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전하는 독일사회는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직도 폐쇄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사회이다.

이민문학도 대부분의 문학사들은 아직도 외면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소수의 몇몇 문학사만 다를 뿐이다.¹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에서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많이 읽힌, 보이틴의 □□독일문학사□□의 경우 6판 개정판이 나오면서 새로 추가된 장이 바로 「가까운 이방인의 문학 *Literatur aus naher Fremde*」이다.¹²⁾ 이 장은 이민문학을 지칭하는 통일되지

11) H. Schlosser(2002), *dtv - Atlas zur deutschen Literatur*, 2002/Brenner, P.(1996), *Neue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m 'Ackermann' zu Günter Grass: From the "Ackermann" to Günter Grass*, München: dtv.

12) W. Beutin u. a.(1998),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6.

못한 용어문제에서 시작하여 출신문화권에 따른 이민문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문학들이 70년대 말 이후로 문학사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한다. 그 외에도 이민문학의 세대간의 차이를 언어 선택의 문제를 통하여 전하고 있으며, 1995년 자이모글루의 □□카낙이 말한다 *Kanak sprak*□□를 2세대, 3세대의 정체성문제를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민문학의 전형적 주제뿐 아니라 - 타와나의 언어실험을 위시한 - 최근 이민문학의 개별적 경향도 요약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미국에서 발행된, 독일어로도 번역되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웰베리의 □□독일문학사□□에서는 이민문학과 다문화사회가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¹³⁾ 이 문학사는 근대 이후 문학의 특별한 연도들을 지정하여 문학사 서술가들이 이 해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 등을 선별기술한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방식으로 쓰여진 새로운 문학사이다. 이때 2000년의 풍경으로 이민문학전문연구가인 픽튀르크에 의하여 ‘다문화주의의 광경들 *Spectacles of Multiculturalism*’이라는 장이 쓰여졌다. 이 장에서는 최근의 다문화사회풍경을 전달하는데 2000년의 라우 대통령 연설과 베를린의 카니발 축제를 예로 들면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 놓인, 아직 다문화화되지 않는 생각들을 지적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터키계 작가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역시 자이모글루의 카낙 문학을 높게 평가한다.¹⁴⁾

이에 반하여 독일출신 작가들이 이러한 다문화 상황을 문학의 소재로 삼는 경우는 아직 극히 드물다. 언급할만한 작품으로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

verbesserte u.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Metzler, S. 694-697이다.

13) Vgl. D. E. Wellbery(2004), *A new history of German literatur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4) 이미 영미권 사회에서는 - 그들의 신대륙정복과 식민역사로 인하여 - 다문화사회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실문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실제로 독일문학계에서 오랫동안 서지취급을 받았던 이민문학도 영미권의 학자들이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여주인공 레니와 터키인 메메트가 맺는 삶의 파트너 관계를 다룬 빌 Heinrich Böll의 □□여인과 군상 *Gruppenbild mit Dame*□□(1982)과,¹⁵⁾ 렌츠 Siegfried Lenz의 단편소설 「고골네 집에서처럼 *Wie bei Gogol*」 정도가 있을 뿐이며 다음에서 다루는 나돌니의 작품이 드물게 본격적인 작품으로 꼽힌다.¹⁶⁾

3. 스텐 나돌니의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

이 장에서는 최근 관심을 끌었던 스텐 나돌니의 장편소설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을 ‘상호문화적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나돌니의 작품을 선택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현대 독일문학에서 독일 출신의 작가가 에세이나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일의 다문화사회를 소재로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다루고 동시에 예술적으로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다. 이 작품의 가치는 예를 들어 계몽주의 시대의 극작가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의 작품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1779)과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동안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유대인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인물상을 만들어 성공적 문학작품으로 □□현자 나탄□□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은, 독일을 위시한 중부 유럽의 길고 풍부한 문학사의 영화(榮華)와 대비되어 이들 문학의 협소함과 배타성을 드러내준다.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독일사회로의 동화를 시도한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독일문학사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견할 만한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1945년 이후의 독일문학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제3제국의 역사는 독일문학으로 하여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낳고 있다. 유대인 학살은 베를린 소재 유대인박물관이나 홀로코스트 기념비

15) H. Böll(2000), *Gruppenbild mit Dame*, München: dtv, S. 365f.

16) S. Lenz(2000), “Wie bei Gogol”, M. Durzak: *Die deutsche Kurzgeschichte der Gegenwart*, Stuttgart: UTB, S. 401-403.

를 보더라도 여전히 현재적이고 시사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독일문학은 유대인을 희생자로 그리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을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그리지는 작품은 여전히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미 대다수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타문화와의 ‘공존’과 ‘관용’이라는 주제는 현재의 가장 큰 타자 집단이라 할 이민자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나돌니의 작품은 문학적 가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최근의 사회적 상황 및 문학계의 상황과 관련해서 볼 때에 여러 모로 시사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텐 나돌니는 1942년 하벨 강가의 제테니크에서 출생하였지만 성장기를 주로 바이에른주에서 보냈다. 양친 모두가 작가여서 글을 쓰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고 나돌니는 대학에서는 역사를 전공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때 역사교사로, 영화감독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뒤늦게 진업 작가로 전향하였고 1990년에는 뮌헨대학에서 현대문학의 시학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지역카드 *Netzkarte*□□(1981), □□느림의 발견 *Die Entdeckung der Langsamkeit*□□(1983), □□뻔뻔스러움의 신 *Ein Gott der Frechheit*□□(1994), □□그 아니면 나 *Er oder ich*□□(2001), □□울슈타인 소설 *Ullsteinroman*□□(2004) 등 주로 장편소설들이 있다. 1980년 잉에보르크 바흐만 상, 1984년에는 현대작가 장려상, 1985년 한스 팔라다 상, 1988년 베를린의회 장려금, 1995년에는 에른스트 호페리히터 상 등을 수상한 작가로서 현대 독일문학의 주목받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스텐 나돌니의 작품들 중 특히 □□느림의 발견□□이나 □□지역카드□□ 등이 모더니즘에 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글쓰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¹⁷⁾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은 상호문화적 글쓰기나 외국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조명을 받았다.¹⁸⁾ 나

17) Vgl. P. M. Lützel(2005), *Postmoderne und postkoloniale deutschsprachige Literatur. Diskurs - Analyse - Kritik*, Bielefeld: Aisthesis/Hoffmann, D.(2001), "Postmoderne Erzählstrukturen und Interkulturalität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terpretation Kommentar Materialien*, Frankfurt a.M.: Peter Lang.

18) Von S. Dirk(1994), "West meets East. Narrative Construction of the Forreiner and Postmodern

돌니 작품에는 기존사회와 거리를 취하는, 특이한 재능이나 성격을 가진 기인이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국내에서는 대표작 □□느림의 발견□□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석사논문으로 한 번 쓰여졌고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도 한 번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¹⁹⁾

3.1.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과 소설의 구조

이 작품은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예고 Vorspann’와 ‘부록 Anhang’이 앞뒤로 붙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두 주인공 젤림 Selim과 알렉산더 Alexander의 삶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젤림은 막 독일에 도착한 1세대 이주노동자이고 알렉산더는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려하는 독일인이다. 대체로 작품은 3인칭화자의 서술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묘사되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본문이 두 인물의 시각에서 번갈아가면서 서술되는 데 있다. 이는 작품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각 인물들이 겪는 사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젤림과 알렉산더의 예기치 않았던 첫 만남은 한번은 젤림의 시각에서, 다른 한번은 알렉산더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이 둘은 처음에는 평행선을 그렸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²⁰⁾

또 다른 소설의 특징으로 이중구조를 들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이탈릭체로 구분되어-화자가 1인칭 “나”로 등장하여 이 사건들과 시차를 두고

Orientalism in Sten Nadolny's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The German Review*, Bd. 69, S. 61-69/Durzak, M.(1991), a.a.O., S. 292-304.

19) Park, Jinhyung(1998), “Die Problematik des interkulturellen Fremdverstehens im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Sten Nadolnys”, *Deutsch als Fremdsprache*, Bd. 3, S. 139-167이 처음으로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을 다루어졌는데 주로 선입견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 외 심재진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Sten Nadolny의 소설 Die Entdeckung der Langsamkeit 연구. 느림과 자아성장을 중심으로□□(2000)가 있으며 1998년에 유중휘가 □□느림의 발견□□(푸른 물결)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20) Vgl. S. Nadolny(1990), a.a.O., S. 48f.

소설의 현재적 관점에서 인물들의 삶을 보고하고 해석하는 일기 내지는 메모형식의 부분이 평행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두 화자 시각의 병행은 독자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소설적 사건 흐름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짚어보게 한다. 전체 소설은 1965년에서부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에 반하여 1인칭 화자 알렉산더가 일기 등의 형식으로 보고하는 부분은 1980년부터 시작한다. 이 두 시간의 간격은 점차 가까워지다가 켈림을 찾아 헤매고 켈림의 죽음을 보고하는 3장에서 만나게 된다. 1인칭의 ‘현재적’ 시각은 시간상으로 병행적으로 소설의 여러 흐름을 만들어 성찰적 거리와 깊이를 만들고 짧은 문장들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 시도한다. 켈림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보듯 1인칭 화자의 감정적 내면세계가 부분적으로 격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1인칭 시각의 보도는 유럽문화에 대한 성찰을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자기비판과 관찰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러한 거리를 만드는 서사구조는 이 소설뿐 아니라 나돌니의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2. 독일사, 독일 이주민사 그리고 소설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독일의 다문화상황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추적하는 내용에 있다. 예고부분은 “1965년, 알렉산더는 로젠하임 인 다리 위에 서서 눈을 꿈적거리며 눈보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좋은 연사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S. 7)로 시작하며 2쪽에 걸쳐 1972년, 1979년, 1982년, 1983년, 1988년에 화자가 겪었던-연설과 관련된-근본문제들을 아주 짚막하게 요약한다. 점점 분량이 짧아지는 마지막 세 연도에는 친구 켈림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알렉산더와 켈림이 맺는 길어지는 우정을 보여준다. 이 화자가 선별한 글들은 전반적인 소설의 구도를 미리 보여준다. 처음에 화자는 자기 자신이 훌륭한 연사가 되는데 몰두하고 있다. ‘나’는 웅변학교에도 다니고 스스로 웅변학교

도 열지만 이에 대한 오랜 세월의 고민과 독서, 관찰, 성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은 웅변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는 타고난 웅변가 켈림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일생을 소설로 쓰는데 흥미를 느끼는데 이는 그에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웅변과 달리 “자동적으로 써 auto-biographisch”져 자신의 재능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된다. 그는 켈림의 일생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저술한다는 작업이 결국 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임을 알게 되고 마지막 질문은 다시 삶을 향한 것으로 켈림은 누구였던가를 묻게 된다. ‘우정’이라는 삶의 내용과 ‘말하고 쓴다’는 삶의 형식의 과제가 얽히면서 ‘나’는 진실과 삶, 말하기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한때 역사를 전공했던 작가는 본론에 해당하는 1부와 2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사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공공의 역사는 인물들의 20대부터 40대중반까지의 개인적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번갈아가면서 보고 된다. 이 사건들은 외부적 사건들을 위주로 서술되면서 사건과 대화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특히 1967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소설의 내용은 여러 방식으로 독일의 역사를 개입시키고 있다. 주요 사건들은 경제부흥, 정치적 변동, 68운동, 70년대의 보수화 등으로 독일의 주류 역사의 흐름을 다루며 이 소설에 쓰여진 역사적 사건들의 특이한 점은 독일 이주노동자의 역사도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데 있다. 작가가 개입시킨 또 다른 역사를 보고하는 방식은 인물들의 가계를 통하여 19세기로까지 역사를 확장하는 것이다. 즉 알렉산더의 할아버지는 독일의 추밀고문관으로 이미 이스탄불과의 외교를 담당한 바 있고 아버지는 나치시대의 군 장교였지만 나치를 비판하여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한 인물이다. 다음 장에서 보게되듯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직접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된다.

나돌니 소설의 특징은 앞서 말한 바처럼 이러한 독일인이 독일에서 겪었던 잘 알려진 일반적 독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에서 살아갔던 이주노동자들의 역사를 같은 비중으로 번갈아가면서 서술하는 것이다. 결국 이 둘이 합쳐 독일현대사를 구성한다. 이주노동사

는 1965년의 최초의 대규모 터키 노동이민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전달되고 무엇보다도 이민 1세대인 젤림, 메부트, 니야지, 외머 등을 위시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들이 경험하는 독일어배우기, 낯선 독일사회와 문화 알아가기, 자기문화와의 차이 논의하기 뿐만 아니라 독일인과의 교제, 결혼 등의 교류를 거쳐 독일 주류사회의 차별과 억압도 감추지 않고 서술된다. “오리엔탈인”과는 같은 병실을 쓰지 않겠다는 독일인으로부터 자신이 인종주의자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알콜 중독자, 더러운 터키인은 추가 오염요금을 내라고 주장하여 결국 젤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함부르크의 포주, 그리고 터키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구형을 내리는 검사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내지는 증오가 드러난다.

3.3. 웅변과 독일 역사

이 소설의 매우 흥미로운 점은 독일문화와 터키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제목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듯 항상 말과 웅변, 이야기를 통해서 화두로 삼는 데에 있다. 인물들의 행동이나 직업, 성격화도 이와 연관된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웅변가를 꿈꾸다가 웅변학교를 열고 원격교육시대가 전개되면서 백만장자가 된 주인공 알렉산더, 베를린의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영화 속의 해설자를 거쳐 정치계로 투신해 열정과 비판적 웅변으로 유명해진 정치인이자 알렉산더의 애인인 기젤라, 또한 한때 수녀생활을 동경했었지만 말을 금지시키고 침묵을 중시하는 수도원에서 삶에 실망하여 세속으로 나오게 되는 젤림의 애인 스위스인 주느비에브, 무엇보다도 알렉산더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주변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천부적인 웅변의 재능을 가진 젤림 등이 그러하다.

특히 말은 말이 행해지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다루어지는데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 Rede’과 ‘웅변가 Redner’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이어가는 핵심줄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웅변의 양상과

의미부여는 주인공 ‘나’의 삶의 경험이 깊고 풍부해지면서 변모하게 된다. 알렉산더의 고향은 ‘로젠하임 Rosenheim’이다. 장미의 집, 마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와 달리 이 지역은 나치시대의 친위대와 집단 수용소를 만든 괴뢰 Joseph Göring의 고향이라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질게 드리워져 있다.²¹⁾ 제3제국, 히틀러의 선동적 연설은 독일인들에게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렉산더의 웅변가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에 대하여 알렉산더의 군 동료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적 해석이 덧붙여진다.

“히틀러 이후에 아직도 웅변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로비취가 그 말을 들었다. “나도 완전히 동감이야.” 그는 강조하고서 불을 켜다. “웅변에 있어서 히틀러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테니까.” (S. 93)

친구 나겔의 첫 번째 말이 히틀러의 위험하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파시즘 연설 이후로 새로운 시대에 웅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면, 비판적 생각을 하지 않는 전형적 군인으로 등장하는 로비취의 말은 거꾸로 이 말을 히틀러에 대한 찬양으로 이해하면서 정반대로 해석되면서 반어화된다.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웅변가가 되기를 꿈꾼다. 말을 잘 하는 형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주로 청자의 입장이었지만 형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형이 갑작스레 어려서 사망한 이후에는 스스로가 웅변가가 되고 싶어한다. 이는 어머니와 고향에 홀로 남겨진 외롭고 고립된 그의 성장환경과 관계가 있고 웅변가가 되어 세상과의 단절과 고립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표현한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고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웅변가가

21) 이 장소는 이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후반부에 평생 켈림을 증오했던 멜부트의 밀수장물이 국경세관원에게 압수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되고 싶어한다. 그는 늘 훌륭한 웅변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적어둔다.

알렉산더는 고향을 떠나 군대라는 바깥세계로 향하는 기차에서 우연히 터키 노동자들의 집단을 만나 같은 기차 칸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 터키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주로 신문만 보지만 이때 터키 노동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던 켈림과 메부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알렉산더는 군대에 들어가고 웅변의 힘으로 진급하여 장교학교에 가게 된다. “간결함과 속도”(S. 62), “짧고 공식과 같은 어휘”(S. 62)가 요구되는 군대에서 그는 군인들에게 웅변과 토론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이를 통하여 한때 장군이 되기를 꿈꿀 정도이다.²²⁾ 그러나 다각도로 진행된 그의 웅변 시도는 “진실”이 상실된 군대언어에 실망함으로써 결국 군대언어는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중지부를 맺는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그러하다. 즉 그 안에 있으며 사람들은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기둥 역할을 하는 잘 무장된 사상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S. 145)

이제 웅변에는 진실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진실과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기 위하여 베를린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도화된 언어와 부패한 사회조직에 분노한 대학생들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68운동의 시기로서 새로운 사회 변혁의 격동기를 그 역사의 현장에서 겪게 된다. 베를린 68운동의 여러 사건들에서 주인공 알렉산더는 두취케, 하버마스 등의 여러 지도자들의 웅변을 관찰하고 본인도 이 역사의 현장에 나서고 싶어 하지만 항상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한다.

22) Vgl. S. Nadolny(1990), a.a.O., S. 101.

3.4. 이야기와 경험, 삶

알렉산더가 생각하는 최고의 웅변가는 천부적으로 이에 대한 재능을 타고난 “인디언”, 즉 터키의 이주노동자 켈림이다. 알렉산더는 베를린에서 터키 노동자 켈림을 다시 만나고 그의 말이 가진 ‘이야기 Erzählen’라는 형식을 새로이 발견한다. “연설, 웅변 Rede”에 주목해왔던 그는 켈림의 연설에서 이야기를 웅변의 본질로 해석한다.

“나는 이야기, 모든 연설의 본질을 발견했다. 나는 이 본질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진지함, 삶에 꼭 필요한 진지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마치 클로로필이 산소를 만들어내듯이.”²³⁾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고민해왔던 웅변과는 다른, 그러나 웅변의 핵심을 이루는 말을 지칭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의미를 두르작은 발터 벤야민의 ‘이야기꾼’의 개념과 연결시킨다.²⁴⁾ 두르작에 의하면 벤야민은 참과 거짓을 따져야 하는 정보와 달리 이야기는 진정성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진실을 다루지만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가 벤야민의 개념을 나돌니의 소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은 벤야민이 지적하듯 - 소설의 시대와 달리 - 이야기꾼의 시대에 있던 공동체에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것은[진정한 이야기는] 드러난 형태로건, 숨겨진 형태로건, 유용한 그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용성은 도덕 속에, 혹은 실제적 충고 속에, 혹은 속담이나 생활의 좌우명 속에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23) “Ich habe das Erzählen entdeckt, die Substanz aller Rede. Ich brauche es jetzt, es produziert einen bestimmten, lebensnotwendigen Ernst, wie Chlorophyll den Sauerstoff.”(S. 9)

24) M. Durzak(1991), a.a.O., S. 302.

날 조언을 해주는 일이 점차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된 근본이유는 경험의 전달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 있다.

Sie [Jede wahre Erzählung] führt, offen oder versteckt, ihren Nutzen mit sich. Dieser Nutzen mag einmal in der Moral bestehen, ein andermal in einerm praktischen Anweisungm ein drittes in einem Spitchwort oder in einer Lebensregel - in jedem Fall ist der Erzähler ein Mann, der dem Hörer Rat weiß. Wenn aber "Rat wissen" heute altmodisch im Ohre zu klingen anfängt, so ist der Umstand daran schuld, daß die Mittelbarkeit der Erfahrung abnimmt."²⁵⁾

벤야민이 진정한 이야기꾼을 다른 시대인 과거에 소속시킨다면 소설가 나돌니는 다른 문화에 소속시킨다. 화자는 젤림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 그리고 유용함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젤림의 웅변이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과 같이 나누는 삶에 있고, 벤야민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경험의 전달가능성"에 있으며 이 삶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에 있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듣는 이의 질문에 답을 하는가 혹은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느냐의- 메부트가 제기하는- 좁은 의미의 유용성이나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웅변을 접한 주인공 알렉산더는 이를 통한 정신적인 성장을 보여준다. 알렉산더의 글에서 보듯이 그는 웅변의 기술과 전략을 평생을 거쳐 고민하고 키케로부터의 과거의 유명한 웅변들과 수사책을 읽어보고 고민한다. 심지어 그는 68운동도 현장에서 경험하지만 그의 웅변에 대한 견해는 젤림을 만나면서 획기적 전환을 맞이한다. 쉐러가 '소박 문학'과 '감상 문학'을 구별하고 자신이 속하지 못했던 소박문학의 작가들을 부러워했듯 알렉산더에게 젤림은 타고난, 살아있는 모범으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웅변가를 꿈꾸었던 그는 젤림을 통하여 삶과 밀착한 진정한 이야기를 찾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그는 그러한 재능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인식하지만 그 대신 젤림의 인생을 서술하는 글쓰기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25) W. Benjamin(1955), "Der Erzähler", in: *Illuminationen*, Frankfurt a. M.: Suhrkamp, S. 388.

작가는 동시에 자신의 유럽 문화권에서 켈림을 설명할 모델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이다.²⁶⁾ 헤르메스는 나돌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신이다.²⁷⁾ 헤르메스는 변신의 귀재요 장사꾼의 신이며 레슬러의 신이고 이야기, 웅변, 거짓말의 신으로 해석된다. 즉 헤르메스는 이야기와 실제적 삶을 연결하는 신이다. 켈림은 어렸을 때부터 조숙했고 말을 일찍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일곱 살 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장사꾼의 중요한 재능으로 여겨진다(S. 79). 또한 켈림은 존경하는 오나시스가 가진 배보다 훨씬 더 많은 미래에 대한 “꿈”을 지녔다. 그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항상 미래의 꿈까지 삶 자체를 이야기로 바꾸고 이야기를 또한 삶으로 현실화하는 재능을 지녔다. 그는 항상 모두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의 한복판에 있었고 이 청중들을 자신의 꿈에 끌어들이었다. 특히 터키로 돌아가서는 낙후된 시골마을을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켜 자신의 이야기에서 현실을 만들어 낸 인물로 성장한다.²⁸⁾ 이러한 단절되었던 이야기와 삶의 연결을 주인공 알렉산더의 경탄을 자아낸다.

26) 헤르메스는 나돌니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이다. 소설 □□뻔뻔스러움의 신□□은 이 헤르메스에 대한 이야기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다.

27)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써 상업과 도둑질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때부터 극도의 조숙함으로 보여주었는데 특히 강보에 싸인 아기일 때 형 아폴론의 소와 송아지를 훔쳐내고 그 소의 가족으로 비파를 남긴, 주로 어린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기억되는 신이다. 성인으로서의 신의 대리인이나 영웅들의 보호자 등과 같이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피에르 그리말, □□그리스로마 신화사전□□, 최애리 외 역, 서울: 열린 책들 2005.

28) 물론 화자는 알렉산더의 켈림에 대한 경탄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를 다양한 시각에서 묘사한다. 대체로 주변의 인물들이 켈림을 이야기꾼으로 인정한다면 동료 멜부트는 그가 실수투성이의 인간이고 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깎아내린다(S. 71f).

3.5. 상호문화적 글쓰기!

앞서 이야기한 □□나탄 현자□□에서 작가 레싱은 종교문제를 통하여 계몽주의 최대의 화두인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화해를 다룬다. 결국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를 대표하는 주인공 살라딘, 나탄, 레하가 드라마의 마지막에 알고 보니 같은 핏줄을 나눈 친척간인 것으로 밝혀지도록 하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모두 합치게 만든다.

나돌니는 독일인과 터키인 두 남자 주인공간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서 말에 관심이 많은 알렉산더가 켈림에 감탄하여 그와 우정을 나누고 그의 인생의 의미와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예를 들어 하인리히 뵐의 소설 □□아담, 너 어디에 있었느냐□□(1951)에서 등장하는 필스카이트와 비교해볼 때 매우 대조적인 구상으로 보인다.²⁹⁾ 평생 성악의 최고 경지를 찾아 헤매는 나치 장교 필스카이트는 그의 성악이론을 인종이론과 결부시킨다. 수용소의 포로 유대인 일로나가 자신의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성악의 경지, 즉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인종적 완성”을 눈앞에서 보여주자 결국 그는 노래를 들으면서 번민하다 일로나를 죽여 버린다. 그는 인종과 예술의 관계가 자신이 주장했던 아리안 족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유대인에게서 실현된 최대의 모순을 보았을 때 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생한 예를 통하여 뵐은 나치시대의 인종이데올로기에 비판을 가한다.

이와 달리 작가 나돌니는 웅변가를 꿈꾸는 외로운 주인공 알렉산더로 하여금 많은 역사상의 웅변가들을 과거의 역사(히틀러)와 현재의 역사(두취케, 아도르노)에서 읽고 목격하게 만들지만 결국 최고의 웅변가를 터키인 켈림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나돌니는 더 나아가 독일사회의 터키 사회에 대한 전형적 시각과 선입견도 상호문화적 시각에서

29) H. Böll, Adam, wo warst Du?, in: H. Böll: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1947-1951*, Bd. I, Köln o. J.

새롭게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서방사회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인 이슬람(터키)사회의 특징으로 ‘명예살인 Ehrenmord’을 지적하는데 이는 이 소설에서도 다루어진다. 이는 독일과 유럽을 위시한 서방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듯,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신의 누이를 집안의 남자형제들이 살해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포주에 대한 살인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터키를 위시한 이슬람 문화를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즉, 야만적인 문화로 낙인찍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에 반하여 나돌니는 명예와 관련된 살인을 다루되 그 동기에 있어서 독일 독자들도 동감할 수 있는 사례로 형상화한다. 알렉산더의 여자친구 기젤라는 자신의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아버지에 반항하여 가출했을 때 헤르미네라는 학자의 도움을 받는다. 기젤라의 인생의 방향설정에서 큰 도움을 준 헤르미네는 페미니스트이자 대학교수이다. 그러나 그녀는 딸 안나의 교육에 실패하고 딸은 어머니와의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한다. 결국 함부르크의 사창가에 마약중독자로 갇혀있는 딸을 구하기 위하여 창녀촌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인 알렉산더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알렉산더는 치밀한 논리를 준비하여 가지만 젤림은 이미 이 사건이 주변환경상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로서 동행한다. 안나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소녀이다. 포주는 안나를 내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젤림에게 화대를 요구하고 덧붙여 유색인으로서 “오염추가요금”을 내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그를 폭행한다. 이에 젤림은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데 분노하여 그와 격투 끝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 젤림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인죄’로 기소된다. 알렉산더는 독일적 시각에서 포주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젤림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는다. 결국 젤림은 ‘폭행치사’로 5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알렉산더는 둘의 계속 우정을 유지해나간다. 그의 행위는 터키뿐 아니라 독일의 친구들에게도 범죄가 아니라 명예를 위한 꼭 필요했던 행위로 인정받고 교우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인물간의 아직 남아있던, 상이한 시각은 터키 사회에 대한 해석에서 충돌하고 결과적으로 둘의 교제가 장기간 단절되도록 만든다. 젤림은 터키 아타 튀르크의 강력한 군사정부를 다양한 갈등의 충돌과 발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옹호하는 반면에 알렉산더는 독일인의 전형적인 시각에서 이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예로 들어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난한다. 이 시각차 때문에 둘은 결국 헤어진다.

3부에서 작가는 상호문화적 시각을 더 진전시켜 터키인의 시각에 중점을 둔다. 우선 아이쉐라는 젤림 친구 외머의 딸 이야기가 3부의 전반부를 차지한다.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이주노동자인 아버지를 뒤늦게 따라와 독일 학교를 다니고 사랑하던 남편을 병으로 잃은, 20대 초반의 아이쉐는 자신의 일생을 독일의 터키노동자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한다. 1,2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두 문화간의 갈등문제가 ‘이주노동자’들과 독일사회의 직접적인 접촉 문제 속에서 다루어진다면 3부의 아이쉐는 이미 상당 기간 흐른 ‘이민자’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쉐는 독일 사회와 터키 이민자 사회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두 사회의 서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Indifferenz’에 절망한다. 아이쉐는 여러 방식으로 두 사회의 연결을 시도하는데 우선 터키 노동자들의 독일 관청 일을 돕기 시작한다. 아이쉐는 신문에 글을 한번 쓴 것을 계기로 언론의 호소력과 파급력에 감동을 받아 직접 대중에게 호소를 하기로 결심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파급력이 큰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하여 이러한 무관심을 깨는 항의를 하기로 결심하고 프랑크푸르트의 한 고층건물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생방송을 요구하는 인질극을 벌이지만 이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추락하여 자살하고서야 - 소원대로 - 방송에 등장한다. 이 방송조차 독일 사회에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도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쉐의 시각에서 주로 전개되면서 두 이질적 사회의 만남과 공존에 대한 터키인의 시각에서 성찰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독일사회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터키사회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으며 여성의 시각에서 터키 이민자 사

회의 패쇄적인 가부장적, 민족주의적 시각도 비판하고 있다.

3부 후반부의 주요내용은 형 집행도중 본국으로 송환되었다가 종적이 사라진 켈림을 알렉산더가 터키에서 찾아 헤매는 이야기이다. 결국 친구 켈림을 찾으러 터키 전역을 헤매는 알렉산더는 1부에서 켈림이 낯선 독일사회를 경험하듯 터키어를 배우고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서 낯선 터키사회를 알게 된다. 원격 웅변교육으로 백만장자가 된 알렉산더는 켈림을 도와주려고 터키에 왔지만 켈림 역시 성공하여 지역유지가 되어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도 알렉산더는 차이를 느끼는데 자신이-스스로 겸연쩍어하듯 백만장자로-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머물러 있고 어머니와 기젤라, 올라프만이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대화상대자들로 남아있고 자신의 웅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배우러 온 학생들의 동기에 실망을 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켈림은 다리를 놓고 물길을 제어해 지역경제 자체를 일으켜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인생에서 많은 만남들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많은 연애사건들을 겪고 세 명의 자식도 얻고 터키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알렉산더의 친구 영화감독 올라프는 켈림의 일생을 기록영화로 제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켈림의 59회 생일 전날 마을에 태풍이 몰려오고 부두에 정박한, 떠내려나갈 위험에 처한 영화촬영 팀의 배를 구하려 켈림과 아들 할룩이 달려갔다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이후 절망에 빠진 알렉산더는 그의 소설을 끝까지 씌으로써 켈림의 이야기를 종결지으려 시도한다.

소설의 ‘부록’에서 이러한 상호문화적 접근의 대단원으로 주인공 알렉산더의 켈림 모방하기가 다루어진다. 평생 알렉산더는 켈림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으로 만족해왔다. 그러나 켈림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국길에 탄 비행기가 왼쪽 엔진이 고장나는데 기장은 실수로 오른쪽 엔진을 꺼버린다. 알렉산더는 이를 지적하지만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서 독일식으로 나선다는 비난을 받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그는 이때 필요한 것이 대화 상대자의 신뢰성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는 단순한 탑승객으로서, 독일인으로

서 아무런 신뢰도 권위도 없다. 결국 그는 “젤림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 답으로 그는 ‘이야기’를 시도한다. 그는 사실의 옳고 그름만을 지적하는 말하기를 벗어나 우선 말을 듣는 상대방의 주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유사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승객들 앞에서 펼쳐나가면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 마지막에 조용히 기장의 실수를 지적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경험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를 통하여 삶을 바꾸었던 것이다. 위에서 보듯 소설의 구조뿐만 아니라 소설의 내용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변화하도록 만든다.

3.6 상호문화적 글쓰기?

소설 속에 나타난, 앞서 지적한 상호문화적 이해를 위한 많은 노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돌니의 작품에서 우리는 그의 ‘상호문화적 글쓰기’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³⁰⁾ 독일문학사에서 이러한 글쓰기의 예로 언급할만한 작품은 극히 드물다. 앞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인리히 뵐의 □□여인과 군상□□과 지그프리트 렌츠의 단편소설 「고골네 집에서처럼」 정도가 있을 뿐인데 이 두 작품들은 모두 주인공인 독일인의 시각만 묘사되고 있고 상대편인 터키인들은 관찰대상으로만 등장하며 더군다나 행동하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나돌니는 물론 젤림을 생생하고 매력적인 행동하는 인물, 특히 유례가 없는 용변가로 형상화해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이 소설에서도 여전히 동방(오리엔트)을 바라보는 독일적 시각은 유지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젤림은 여전히 독일적 자아에 대한 타자로 등장한다. 화자는 알렉산더와 젤림 사이에서 시각을 변환하면서 두 문화의 이해를 서술하고 있고 대체로 성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30) M. Durzak(1991), a.a.O., S. 303.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수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는 내면성을 기준으로 동서문화를 가를 때에 드러난다. 알렉산더는 젤림의 이야기의 특징이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부러워한다.

“젤림은 한번도 자신의 내면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확신에서 그렇다. 젤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일들이 외부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고 어떻게 계속되는가였다. 나도 그러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자주 이러한 것을 놓쳤다.

Selim hat nie dazu geneigt, über sein Innenleben zu sprechen. Ich respektiere das, und zwar aus Überzeugung. Ihn interessiert, wie die Dinge in der äußeren Welt zustande kommen und wie es mit ihnen weitergeht. Mich auch, ich verliere es nur viel zu oft aus den Augen.” (S. 161)

알렉산더는 한편으로는 젤림이 외부적 삶과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에 경탄과 존경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는 젤림이 내면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고 서술한다. 즉 내면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젤림의 개인적 특성으로 돌리기 때문에 독자들은 젤림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보고될 때에도 젤림의 내면적 고민을 엿볼 수가 없다. 이러한 두 인물의 차이는 인생사를 보고하는 3인칭 서술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알렉산더는 3인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1인칭으로 묘사되는 화자의 서술도 담당하기 때문에 독자는 알렉산더의 고민과 내면을 더 깊숙이 읽을 수 있어 이 차이는 더욱 강조된다. 젤림은 외면적으로만 행동하는 인물이고 그의 내면과 고뇌는 충분히 묘사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독일인 주인공은 고뇌하고 성찰하는 내면을 가진 주체로 등장한다.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서평에서 ‘구어적 문화’(동방)와 ‘문어적 문화’(유럽)³¹⁾의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혹

31) Vgl. J. Manthey(1990), “Am besten nichts Neues. Sten Nadol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Die Zeit*, Nr. 15. v. 6. 4. 1990.

은 서구의 개인문화와 여타 문화의 공동체문화로 구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에서 두 문화는 많은 상호문화적 계기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근본(주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때로 두 문화에 대한 상투어를 재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4. 다문화에 향한 열림과 교통

앞서 독일문학사를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사회나 문학계에는 스스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독일문학계에서는 타자나 타문화와의 이해와 공존을 다루는 이론으로 두 문화간의 상호이해와 경계허물기를 다루는 상호문화성 이론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한 나돌니의 작품에서는 드물게 독일인과 터키인이 나누는 우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작가는 두 주인공 알렉산더와 젤림을 처음에 각기 전형적인 독일적 특징과 터키적 특징을 가진 인물들로 형상화하지만 말, 이야기, 웅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진한 우정을 맺게 만든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찾던 목표가 타고난 이야기꾼 젤림에게서 현실화된 것에 경탄하며 그의 일생을 소설로 쓰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계몽주의 시기의 작가 레싱과 유대인 철학자 멘델스존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당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종교적 관용을 유대인 나탄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처럼 새로운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이해라는 과제는 젤림이라는 생생한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작품화된다. 웅변가를 꿈꾸는 알렉산더에게 젤림은 말과 삶의 관계를 매개하는 최고의 웅변가이자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킨 인물이다. 이러한 재능은 말에 대한 논의를 웅변과 수사학의 차원을 넘어 삶과, 역사와 진실과 사회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이미 원자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독일사회를 배경으로 청중과의 의사소통과 연대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야기의 전통을 간직한 젤림의 이야기 방식이 유입됨으로써 두 문화는 자신의 문화

와 타문화를 다시 인식하게 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된다. 비록 도덕적 교훈이 부분적으로 강하게 드러나지만 젤림이라는 나탄의 후계자를 생생하게 만들어냈고 그런 가운데 시대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데에 나돌니의 독창성과 업적이 놓여 있다.

참고문헌

- 박정희(2004), 「최근 독일어권 문학에서 이주자문학의 현황」, □□독일문학□□ 제 91집, 187-206쪽.
- 장희권(2006), 「회귀하는 보수주의. 보토 슈트라우스 논쟁을 통해 본 1990년대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 □□독일어문학□□ 34집, 201-226쪽.
- 최윤영(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독어교육□□, 제35집, 425-446쪽.
- _____ (2006), 「낮선 자의 시선. 외즈다마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방성과 다문화성의 문제」, □□독일어문학□□, 제33집, 77-102쪽.
- _____ (2006), 「매체로서의 언어, 매체로서의 몸. 요코 타바다의 목욕탕과 벌거벗은 눈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제 99집, 86-106쪽.
- 그리말, 피에르(2005), □□그리스로마 신화사전□□, 최애리 외 역, 서울: 열린 책들.
- Auernheimer, G.(1990), *Einführung in die interkulturelle Erziehung*, Darmstadt: Primus.
- Bamer, W.(1994),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C. H. Beck.
- Benjamin, W.(1955), “Der Erzähler”, in: *Illuminationen*, Frankfurt a. M: Suhrkamp.
- Beutin, W. u. a.(1998),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6. verbesserte u.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Metzler.
- Böll, H.(2000), *Gruppenbild mit Dame*, München: dtv.
- Brenner, P.(1996), *Neue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m 'Ackermann' zu Günter Grass*, Tübingen: Niemeyer.
- Bunzel, W.(1996), *Sten Nadolny*, Eggingen: Edition-Isele.
- Durzak, M.(1991), “Schnittpunkte interkultureller Erfahrung. Am Beispiel deutsch-türkischer Begegnung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Praxis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Forschung - Bildung - Politik. Beiträge zum 2. internationalen Kongress der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München, S. 292-304.
- Hoffmann, D.(2001), “Postmoderne Erzählstrukturen und Interkulturalität in Sten

-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terpretation Kommetar Materialien*, Frankfurt a. M.: Peter Lang.
- Lenz, S.(2000), “Wie bei Gogel”, in: Durzak, M. (Hrsg.): *Die deutsche Kurzgeschichte der Gegenwart*, Stuttgart: UTB, S. 401-403.
- Lützel, P.(2005), *Postmoderne und postkoloniale deutschsprachige Literatur. Diskurs - Analyse - Kritik*, Bielefeld: Aisthesis.
- Nadolny, S.(1990),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München: Piper.
- Park, Jinhyung(1998), “Die Problematik des interkulturellen Fremdverstehens im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Sten Nadolnys”, *Deutsch als Fremdsprache*, Bd. 3, S. 139-167.
- Rösch, H.(1992), *Migrationsliteratur im interkulturellen Kontext*, Frankfurt a. M.: Iko-Verlag.
- Schlösser, H.(2002), *dtv - Atlas zu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dtv.
- Von Dirk S.(1994), “West meets East. Narrative Construction of the Foreigner and Postmodern Orientalism in Sten Nadolny’s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The German Review* 69 (1994), S. 61-69.
- Wellbery, D. E.(2004), *A new history of German literatur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Wierlacher, A./Bogner, A.(2003), *Handbuch Interkulturelle Germanistik*, Stuttgart/Weimar: Metzler.
- Zagala, S.(2007), *Kulturkampf in den Medien*, Saarbrücken: Vdm-Verlag.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im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Yun-Young Choi
(Seoul National Univ.)

Ein das moderne Deutschland prägendes Bild kann man mit dem Schlüsselwort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beschreiben. Die deutsche Gesellschaft und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reagieren jedoch auf die neue Realität mit Verzögerung und Vorbehalt. Dieses Phänomen wird zuerst durch die Betrachtung der modernen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eschrieben. In dieser Situation erweist sich der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von Sten Nadolny (1990) als hoch interessant, nicht nur wegen seiner charakteristischen Romanstruktur oder seines engen Bezugs zur modernen deutschen Geschichte, sondern auch wegen seiner interkulturellen Schreibweise. Dies lässt sich auf mehreren Ebenen feststellen. Erstens bezieht der Schriftsteller deutsche moderne Geschichte eng in das Erzählen mit ein: Nicht nur die Geschichte des dritten Reichs, der deutschen Teilung, der 68er Bewegung, des Terrorismus oder der konservativen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70er und 80er Jahren, sondern auch die Geschichte der Gastarbeiter und Migranten in Deutschland sind dabei als deutsche Geschichte betrachtet und in einer

engen Verbindung mit den Schicksalen der einzelnen Figuren dargestellt. Die Romanstruktur zeigt ebenfalls parallele Entwicklungen, die sich im Laufe der Handlung einem Fluchtpunkt nähern, indem sie aus den Perspektiven beider Hauptfiguren, des türkischen Gastarbeiter Selim und des Deutschen Alexander abwechselnd beschrieben werden. Im ersten und zweiten Teil lernen hauptsächlich die türkischen Gastarbeiter die fremde deutsche Gesellschaft kennen, während im dritten Teil zuerst von den harten Bemühungen einer Türkin um den Dialog zwischen der deutschen und türkischen Gesellschaften die Rede ist und später das Kennenlernen der türkischen Gesellschaft und Kultur von Seiten Alexanders thematisiert wird. Nicht zuletzt kann man den Höhepunkt der interkulturellen Schreibweise in der Beschreibung von Freundschaft zwischen Selim und Alexander erfahren. Sie kann man mit der Freundschaft zwischen Lessing und Mendelssohn vergleichen. Die besondere Errungenschaft von Sten Nadolny liegt vor allem darin, dass er die vielseitigen problematischen Aspekte auf die Rede konzentriert und eine einmalige Rednerfigur geschaffen hat. Die Problematik der Rede und des Redners wird nicht nur im Sprechen, Schreiben oder in der Rhetorik sondern auch im neuen Verhältnis des Redners zu Glaubwürdigkeit, dem Publikum und der Lebensfrage reflektiert. Wenn auch der Schriftsteller immer noch die Figuren teilweise in der typischen kulturellen Dichotomie, wie der zwischen deutscher Innerlichkeit und türkischer Äußerlichkeit verbleiben lässt, ist die Gestalt von Selim dem Redner als Nachfolger von Nathan dem Weisen, als Korrektiv gegenüber der deutschen Gesellschaft zu interpretieren.